

㉔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㉕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씨 불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요.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서영보, 『문의당기』-

* 문의: 물결무늬.

1. ㉔, 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는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㉔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㉕가 동의한 이유는 ㉔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㉕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㉕가 ㉔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㉕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㉕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㉔가 '물을 보는 법'을 '씨 불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앞음과 깊은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부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과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파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키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낫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들레를 불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트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테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낫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배필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낫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이옥, 『담초(談艸)』-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풀줄을 일컫는 말.

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㉔ 너는 읽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읽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읽지 않기를 바라느냐? 읽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㉕ 그렇다면 읽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읽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읽어도 좋을 것을 읽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읽어도 좋을 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읽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읽는 사람에게는 읽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㉖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읽어도 좋을 것을 읽지 못하고 읽어서는 안 될 것은 읽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읽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읽지 못하고, 입은 맛난 음식을 읽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읽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읽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읽지 못하고, 고귀한데도 교만한 것을 읽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것을 읽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읽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읽어서는 안 될 것을 읽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읽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읽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읽어버리고, 세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읽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읽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읽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읽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읽는다.

㉗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읽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읽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읽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읽는다. 내적인 것을 읽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읽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읽는다.

㉘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읽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읽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읽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읽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읽어도 좋을 것은 읽고 자신의 읽어서는 안 될 것은 읽지 않는다.”

- 유한준, 『읽음을 논함』 -

1. ㉔~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읽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㉕: 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㉖: 읽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㉗: 읽지 못하는 것과 읽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㉘: 읽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2.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읽어도 좋을 것'과 '읽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읽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답쟁이 즐기'의 속성에 주목해 답쟁이 즐기가 답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읽어서는 안 될 것을 읽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읽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답의 의미를 사유하여 답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읽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읽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